

생태학의 관점에 따른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김성희*

<차례>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I. 매체 생태학의 이론적 배경
- III.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 내용의 비판과 보완
- IV. 나가며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어교육 분야에서 매체언어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입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¹⁾ 그 사이 매체언어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어교육 내에서 매체언어교육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매체언어교육의 현실은 그 연구 실적이 쌓여가는 것에 비하여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매체언어교육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windpia35@naver.com)

1) 김대행(1998)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체언어’가 국어교육 학계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0여년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7 교육과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사이에 국어교실에서 많은 매체언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국어시간에 매체읽기’(전국국어교사모임, 나라말, 2005)와 같은 책으로 출판되어 교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기도 하였다.

거나 영역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체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매체언어’란 말 그대로 언어의 개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화된 소통 양식을 주목하게 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매체언어교육의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의 매체에 주목하고 소위 말하는 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²⁾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국어교과가 생태 환경(문화, 매체, 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적용과 진화에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박인기, 2010 : 144). 즉 지나친 순 언어주의에 중심을 둔 국어교육의 관점에 따라 매체언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제 국어교과를 둘러싼 생태 환경의 하나로서의 매체에는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습자의 실제 삶을 반영한 매체언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겉돌게 된 것이다. 지금 교실에서 매체언어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루어지더라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나 많은 분량의 교과 내용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그보다는 실제와 괴리된 교육 목표와 그 내용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학습자 혹은 인간의 생태 환경을 반영한 매체언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체 생태학의 관점에서 매체언어교육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매체 생태학³⁾이란 ‘환경으로서의 매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포스트먼이 1968년 미국 영어교사협회 연례 회의

2) 임천택(2001 : 60)에서는 ‘매체 문식성’이란 매체 텍스트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체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라 하였다. 윤여탁 외 (2008 : 51-52)에서도 새로운 매체 시대의 리터러시를 연구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복합 양식 리터러시를 제시하면서 아울러 분석과 해석, 나아가 생산(창작)의 개념까지도 포함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매체 문식성의 신장은 국어교육에서 매체언어교육의 지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3) 학자들마다 ‘미디어’라는 용어를 쓸 경우의 맥락과 ‘매체’라는 용어를 쓸 경우의 맥락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용어가 혼재되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직접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체’로 통일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생태학’이라는 용어도 ‘매체 생태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에서 처음 소개하였다(Casey Man Kong Lum ; 이동후 역, 2008 : 50). 매체 생태학은 매체가 단지 소통의 도구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그 영향력이 의사소통, 생활 방식,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전반에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매체를 환경으로 보게 될 경우 매체언어교육은 단지 매체의 소통 도구적 속성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싼 매체 환경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학습자의 삶을 위한 교육을 지향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매체의 소통 도구적 속성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매체는 소통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고 매체언어교육은 그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체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총체적 삶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는 단지 매체를 소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매체를 환경으로 보는 매체 생태학의 관점에서 매체언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체를 환경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렇다면 매체언어교육이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학습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을 이루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매체언어교육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매체 생태학의 관점에서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매체 생태학의 이론적 배경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끊임없이 상호교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류의 역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연과의 상호교섭 속에서 진화해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생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인간 중심의 관점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생태학이란 생물 유기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형무형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생존과 적응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 양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박인기, 2003 : 2). 오늘날 생태학은 단지 생물학 연구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학문들과 결합하면서 때로는 은유로, 때로는 인식론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학이 확장되어 형성된 다양한 학문분야들 중에서 매체 생태학의 관점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⁴⁾

메이로비츠(Joshua Meyrowitz)는 매체를 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김성벽, 2002 : 6에서 재인용). 첫째는 매체를 회로(conduit)로 보고 매체에 담겨진 내용과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매체를 언어(language)로 보아 사람들의 지각, 이해, 반응 등을 유도하는 매체의 표현 양식이나 제작 기법에 주목하는 것이다. 셋째는 매체를 환경(environment)으로 보고 매체의 내용이나 문법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인으로서 매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매체 연구는 첫째와 둘째 관점에 치우쳐 있었다. 매체 생태학은 그 중에서 비교적 소홀히 대접받았던 세 번째 관점인 ‘환경으로서의 매체’에 주목한 것이다. 매체 생태학 연구는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매체의 메시지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조건에 주목하면서

4) 다만 여기서 국어교육 자체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박춘우(2003 : 12)에서 말한 학습을 생태학적으로 바라보아 학습자와 학습자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과 박인기(2009 : 310)에서 말한 국어교과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국어교과가 자신의 생태적 적응과 진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을 둔 교과 생태학의 관점을 모두 기본적인 전제로 할 것이다. 지금 이 논문에서 학습의 생태학적 양상이나 교과의 생태학적 현상을 모두 언급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매체 생태학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들이 교육에 들어온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매체 생태학에 따른 매체언어교육이 결국 학습자의 학습 생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주장은 교과 생태학의 진화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거시적 차원에서 전제하여 두고자 한다.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벗어나 맥락으로서의 매체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이주아, 2011 : 16). 이러한 관점은 앞의 두 관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회로로서의 매체나 언어로서의 매체도 결국 인간의 삶에 매체가 어떠한 기능으로 작동하는가에 주목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환경으로 보게 된다면 그 환경은 회로나 언어의 기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회로로 보았을 때는 매체에 담긴 내용에 주목하게 되고 언어로 보았을 때는 매체의 표현 양식에 주목하게 되었다면, 이를 환경으로 본다면 매체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인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변인으로서의 작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담긴 내용, 매체의 표현 양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으로서의 매체 관점은 앞의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아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맥루언을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은 매체 생태학이란 용어를 은유로 사용해 왔으나 포스트먼은 ‘매체 환경에 관한 연구’라고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면서 은유가 아닌 새로운 연구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Casey Man Kong Lum ; 이동후 역, 2008 : 51).⁵⁾ 따라서 매체 생태학은 매체를 환경으로 보고 인간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이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산다는 생태학적 관점과 매체가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 하나라는 관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매체는 메시지’라는 말을 넘어서서 매체가 자연 못지않게 인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러한 관점이 매체 결정론에만 입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이 자연에 일방적으로 지배를 받거나 자연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듯이 매체와 인

5) 사실 1968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매체 생태학이란 용어가 등장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의 매체 연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맥루언의 경우 직접 매체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매체 관련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이 아니라 기호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 혹은 사회언어학의 한 분야로 주로 연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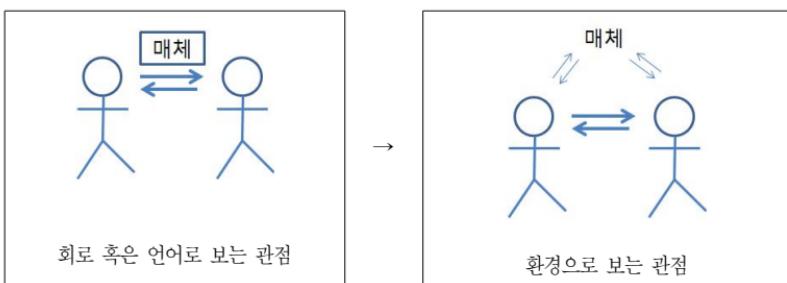
간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 생태학의 관점은 포스터만에 의해 직접 제기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매체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의 영향에 주목한 학자들은 많았다.⁶⁾ 그 중 누구보다도 대표적인 사람은 역시 맥루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매체가 우리 자신의 확장이며 이 매체의 개인 및 사회적 영향은 우리 하나하나의 확장,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테크놀로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입되는 새로운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Marshall McLuhan; 박정규역, 1997 : 7). 그리고 매체가 우리 인간 감각의 확장이지만 그 감각도 역시 우리 개인의 에너지에 부과되는 기본 요금과 같은 것이며 그 감각이 개개인의 인식과 경험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즉 매체를 단지 인간의 소통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형성하는 감각의 일부로 본 것이다. 인간들은 매체가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지식과 정보를 얻고 타인과 소통을 하는 등의 많은 경험은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매체는 매개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구조적 속성에 따라 인간의 인식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험의 질과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오늘 날과 같이 매체를 통하여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비중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매체가 인간에게 부여된 또 다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터만은 매체가 인간 감각의 일부가 되기 이전에 이미 환경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 생태학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기법이 어떻게 정보의 형태, 양, 속도, 유통, 방향을 통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정보의 형태 또는 편향성이 사람들의 지각, 가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주장한다(Postman, N. 1979 : 186 ;

6) 그밖에도 매체 생태학의 이론적 기반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메이로비츠(Joshua Meyrowitz), 포스터(Mark Poster), 피들러(Roser Fidler)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들은 기술의 도입과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매체 생태학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김성벽, 2004 : 224). 현재 매체 생태학회(MEA)는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http://www.media-ecology.org>)

Casey Man Kong Lum ; 이동후 역, 2008 : 354에서 재인용). 그는 매체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하나이긴 하지만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 환경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본다. 많은 매체 생태학자들이 환경으로서의 매체가 인간의 인식, 사회, 문화 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 전자 매체 환경이 가진 편향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매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매체를 회로나 언어로만 본다면 이는 주로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서 소통의 도구로 작동하는 매체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으로 보게 된다면 매체가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 환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굳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상황이 아니라도 매체 자체와 인간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매체 생태학자들이 매체의 본질이나 특성을 바라보는 원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김성벽(2004 : 228-229)에서는 매체 생태학의 기본 원리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구조는 그 자체로서 현실의 어떤 인식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메시지이다. 즉 인간의 현실구성을 지배하는 것은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매체의 형태라는 것이다. 둘째, 모든 매체는 그 자체의 편향성과 제한성을 갖는다. 매체 구조는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편향성과 제한성으로 인해 인간의 현실 인식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의 어떠한 매체도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없으며 모든 매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실 오늘날의 혼성 매체들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매체가 아니라 기존의 매체를 아우른 매체들이다. 넷째, 매체는 그 매체를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매체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그 매체의 속성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다섯째, 다양한 매체는 사회적 단체의 조직화 및 그들의 모든 제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 원리는 매체의 가장 지배적인 원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원리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매체 생태학자들에 의해 정리되고 검증되면서 그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완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원리들에는 매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관점들이 제시되어 있다. 매체의 본질과 특성, 매체의 역할과 기능, 매체와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다섯 가지 원리를 매체 언어교육에 필요한 매체 생태학적 관점으로 재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서 재개념화한 매체 생태학적 관점을 매체언어교육의 내용에 투영한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그 줄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매체 생태학에서 매체를 환경으로 본다는 관점의 가장 핵심은 매체 환경이 인간이 판단하고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인식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첫째 원리와 둘째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인간의 현실 인식은 매체의 구조와 특성에 의해 좌우되며 이러한 매체는 특정한 방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의식 중에 매체의 편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맥루언은 매체는 인간 감각의 연장으로서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형성하는 일부라고 하였다(Marshall McLuhan ; 박정규역, 1997 : 24). 포스트먼도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가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짓고 지식의 특성을 바꾸어 놓는다고 말하였다(이동후, 1999 : 16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들은 자칫 매체 결정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논의들이지만 그동안 매체에 대해 과소평가했던 관점에 대해 새

로운 인식을 깨우쳐 줄 수 있다. 특히 매체 환경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쉽다(이동후 2004 : 111). 따라서 매체언어교육에서는 이러한 매체의 구조와 특성이 인간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함으로써 환경으로 작동하는 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것은 넷째 원리와 다섯째 원리로 매체가 인간의 심리는 물론이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⁷⁾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매체가 인간의 현실 인식에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는 것은 즉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다른 매체 생태학자인 캐리는 매체가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가 어떤 상호작용 관계에 놓이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전신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역 통제감이 쇠퇴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Casey Man Kong Lum ; 이동후 역, 2008 : 417-420)에서 재인용). 또한 경제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대중들이 공중(公衆)에서 수용자로 바뀐 역할 변화에 주목하기도 하였고 언론 매체가 어떻게 민주주의 의식을 바꾸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이러한 캐리의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사회적 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밝힌 것이다. 따라서 매체언어교육에서는 매체가 개인 및 집단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체가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분야에 일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매체 역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매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셋째 원리에서 지목한 것으로 매체들이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며 특히 오늘날 혼성 매체들이 과거의 매체들을 흡수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용은 제2의 구술성 개념을 통해 전자언어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7) 여기서는 제도라는 부분을 법에 의한 사회적 규칙의 의미보다는 다소 폭넓게 관습에 의한 사회적 규칙 정도로 보고자 한다.

러한 구어문화의 부활이 분석적 인쇄문화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이동후, 2009 : 21-22). 이러한 주장은 매체 생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인데 사실 매체의 발달은 결코 불연속적인 것이 아닌 이상 당연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매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매체들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오늘의 매체에 흡수된다는 것은 과거의 매체 영향력이 오늘의 매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체언어교육에서 매체의 발달과 매체들 간의 관계를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III.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 내용의 비판과 보완

21세기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매체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중요한 정보 매체이지만 예전만큼 절대적이지는 않다. 컴퓨터는 이제 일상 속에서 24시간 인간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다. 휴대폰은 이제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휴대용 컴퓨터이자 음악 감상 등의 엔터테인먼트 기기이며 더 나아가서 친구에 버금가는 존재이다. 그 외에 DMB, 아이패드 등의 다양한 전자 기기들이 인간의 삶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한다. 매체가 환경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특히 전자 매체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자 매체의 대명사인 인터넷은 휴대폰과 결합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2011 국어과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과정에서 다룬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 및 영역	성취 기준
초등 3~4학년 듣기와 말하기	(8) 다양한 매체를 보거나 듣고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초등 3~4학년 쓰기	(6)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초등 5~6학년 듣기와 말하기	(1) 뉴스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7)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을 알고 매체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한다.
초등 5~6학년 쓰기	(6)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
중 1~3학년 쓰기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표 1] 2011 교육과정 중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

국어교육의 내용 중에서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해설 속에서 다양한 매체 유형 중의 하나로 인터넷을 언급하고 있다. 일단 이 연구에서는 각 성취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 중에서 인터넷 매체를 언급한 경우를 선별하여 살펴보았다.⁸⁾

앞서 매체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매체언어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원리를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매체의 구조와 특성이 인간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매체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매체들 간의 관계는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연관성이 깊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 상의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달리 보아야 할 점 등을 찾아 보완할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먼저 초등 3~4학년의 ‘듣기와 말하기’ “(8) 다양한 매체를 보거나 듣고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에 대한 교육과정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8)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매체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듣기와 말하기’, ‘쓰기’ 영역에 치우친 점이 눈에 띈다. 영역 간의 불균형은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의 언어생활이 모든 영역에 연관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다소 우려스러운 배치이다.

현대 생활에서는 직접 대화 시간보다 여러 매체를 보고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접하면서 갖는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매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절제하는 마음과 비판적 태도를 가지면서 이용하도록 지도한다. 특정 매체에 대한 선호와 중독 증상 등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다양한 매체에 드러나는 내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바람직한 매체 이용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공통으로 이용하는 매체에 나타난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이 디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때로는 상대방과 공감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 21)⁹⁾

생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 매체를 보고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경향’은 매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안내할 수 있고 ‘다양한 소통 매체를 접하면서 갖는 생각과 느낌’은 좀더 확장·심화시킨다면 매체가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매체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매체간의 관계에 대한 것은 다루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절제하는 마음’과 ‘중독 증상’을 언급한 것은 인터넷 중독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메이로위츠는 미디어 환경은 사용 초기에는 가시적일 수 있지만 지배적인 미디어 환경은 비가시적으로 경험된다고 하였다(이동후, 2004 : 111). 그렇다면 여기서 인터넷 중독은 이미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받아들여진 인터넷 매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바른 태도를 갖기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교육 내용에는 매체 환경이 단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

9) 이 해설에서 핵심으로 삼는 내용을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매체를 소통의 도구로 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제하는 마음과 비판적 태도를 갖고 바람직한 이용 태도를 갖는 것이다. 즉 효율적 이용과 바람직한 태도라고 압축해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매체가 얼마나 중요한 소통의 도구인가를 인식하게 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효율적 이용이나 비판적 태도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는 것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중독 증상에 대한 절제하는 마음은 이를 제대로 인식한 결과에 따라 길러져야 할 태도이다. 그래야만 무엇을 왜 절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른 이용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학년군의 ‘쓰기’ “(6)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편집하는 능력을 길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문자와 함께 그림이나 사진, 표, 동영상 등을 사용하여 글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는 단순히 컴퓨터 활용 기능을 익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쓰기의 목적, 주제, 독자에 따라 매체를 적절히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 26)

여기서 핵심 내용은 복합 문식성에 따른 쓰기 능력의 신장이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한 글쓰기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상호작용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을 포함한 글의 전달력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 매체에서 단지 좌판을 입력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집어넣는 것만으로 쓰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인터넷 공간에 업로드하여 소통시키고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담론을 확장해나가야 비로소 쓰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텍스트라도 어떤 게시판에 어떻게 올리는가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위의 설명에서는 그런 점까지 잘 다루고 있지는 않다. 즉 쓰기 행위의 생태적인 환경으로서의 인터넷 매체보다는 쓰기 도구로서의 컴퓨터 매체만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육 내용에서는 매체의 구조와 특성이 인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문자와 함께 그림이나 사진, 표,

동영상 등을 사용하여 글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에서 매우 작으나마 매체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인터넷 매체가 이전의 다른 매체들의 혼성 매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넷 매체에서의 쓰기는 제2의 구술성을 갖기 때문에 인쇄매체 시대의 쓰기와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이동후, 2009 : 21-22).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쇄매체 시대의 사고 특성을 가지고 쓰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력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 교육 내용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 내용을 벼랑 끝에 놓은 듯하다. 가시적으로 인터넷 매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몇 가지를 보완하면 이를 다루도록 할 수 있다. 우선은 컴퓨터를 사용한 쓰기를 인터넷에서의 쓰기로 바꾸고 인터넷 매체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의 쓰기는 과거의 쓰기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복합 문식성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쇄매체 시대에도 글의 목적, 독자, 주제를 고려하여 글쓰기를 하였듯이 인터넷 매체 시대에도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반면에 인터넷 매체에서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들이 초등학교 3-4학년이라는 학년군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매체를 환경으로 인식하여 그 영향력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초등 3-4학년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나 그 다음 학년군인 초등학교 5-6학년은 앞의 학년군에 비해 성숙한 교육 내용을 배울 필요가 있다. 최근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수나 인터넷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 어떤 환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초등 5-6학년의 ‘듣기와 말하기’ “(1) 뉴스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뉴스가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에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전달하는 이의 관점도 함께 반영됨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뉴스는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식 중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 소식으로, 신문·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달된다. 사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서 보도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고, 선택된 사건을 짧은 시간이나 지면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과정에서 뉴스를 만드는 이들의 관점이 반영됨을 알게 한다. ‘뉴스의 담화 구조 이해하기’, ‘서로 다른 시각이 반영된 뉴스 비교하기’ 등을 통해 뉴스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정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 32)¹⁰⁾

“신문·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달된다.”는 부분은 각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뉴스의 수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짧은 시간이나 지면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은 매체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내용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뉴스를 만드는 이들의 관점이 반영됨’은 언론 제도가 뉴스 매체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수용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역학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뉴스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정보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뉴스가 매일매일 인간의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뉴스 제작자 외에도 어떤 것들이 뉴스 매체에 영향을 주고받는지 등에 대한 것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뉴스의 내용은 단지 제작자에

10) 이 해설에서는 뉴스라는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 문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신문이나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매개된 소통임을 설명하면서 뉴스에는 뉴스를 만든 사람들의 관점이 반영됨을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판적 문식성은 매체언어 교육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뉴스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치 있는 교육 내용이다.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다 복잡한 역학 관계에 놓여있다. 또한 뉴스가 실리는 하드웨어적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즉 매체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 뉴스라는 분야를 다룰 때에는 기존의 매체들을 흡수 통합해버린 인터넷 매체가 혼성 매체로서 기존의 텔레비전 뉴스나 라디오 뉴스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도 있다.

한편 초등 5-6학년의 ‘듣기와 말하기’에서 “(7)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을 알고 매체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한다.”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달리 매체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매체의 발달로 매체의 공적인 역할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터넷 대화방이나 게시판 댓글 등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을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능력을 갖도록 지도한다. 온라인 대화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혹은 시간 차이를 두고 화자와 청자가 문자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주고받지만 글보다는 말에 가깝다. 그러나 어조, 음색, 높낮이, 장단, 강약 등과 같은 반언어적 표현이나 표정, 몸짓, 의상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온라인 대화를 할 때에는 문자 언어와 함께 그림말(이모티콘) 사용 등 다른 방법으로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고, 통신언어의 윤리와 예절을 지키도록 지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 34)

이 교육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통신언어의 윤리와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 이해는 온라인 대화와 일상 대화를 비교하면서 그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매체 생태학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를 조금은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글보다 말에 가까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특성을 아는 것이라든지 소통 과정에서 감정 전달 방식의 차이 등을 이해하는 것은 매체의 구조적 특성이 소통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교육 내용이 매체를 통한 소통의 특성 중에서 언어적 양상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가령 게시판의 댓글이 말에 가까운 글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한 댓글이 말처럼 쉽게 쓰여 지다 보니 생각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써 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분별한 댓글들이 많이 생성된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김혜숙 외, 2010 : 320). 또한 인터넷 매체의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익명성, 복제와 유통의 자유로움 등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 내용에서는 지나치게 언어적 특성에만 치우치고 있어서 오히려 첫 문장에서 언급하였던 매체의 사회적 역할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언어의 윤리와 예절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정확한 매체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기반에 두고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초등학교 5-6학년의 ‘쓰기’ 영역에서 “(6)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도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하여 글을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만으로 쓸 내용을 구체화하기 힘들 때, 책,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조사하여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독자의 요구, 관심, 상황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달리 정리할 수 있으며,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할 수도 있다. 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사진, 도표,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글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써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필요한 경우 학생들에게 참고하거나 조사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도록 지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 45)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처에 관련된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¹¹⁾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료 조사와 그것을 토대로 한 글

11) 그런데 이 교육 내용에서 인터넷 매체에서의 쓰기 윤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부분

쓰기가 매우 혼한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쓰기 교육 내용인 것은 맞다.

다만 책,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자료를 조사할 경우 각 매체에 따라 신뢰성이나 내용 충실성 등을 판단하는 내용이 없어서 어렵다. 자료의 신뢰성이나 충실성 등은 매체의 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 매체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나 정보들은 특히 매체의 속성에 영향에 따라 신뢰성이나 충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복제가 쉬운 인터넷 매체의 속성으로 인해 출처를 밝히는 윤리교육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 속성과 관련된 내용까지 아울러 지도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중학교 1~3학년 ‘쓰기’ 영역에서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에 대한 설명에서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쓰기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글이라 하더라도 매체가 달라지면 글의 내용과 형식이 영향을 받게 됨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대화, 인터넷 게시판 댓글, 전자 우편, 블로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쓰기의 내용과 형식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지도의 초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 59)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매체에 따라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짐을 이해하는 것과 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전자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그 특성을 고려하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매체가 단지 쓰기 도구로서 글을 쓰는 방식에만

이 아쉽다. 인터넷 매체에서의 쓰기 윤리가 단지 출처를 밝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익명성으로 인한 쓰기 윤리의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글이라면 그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쓰기 윤리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함께 무분별하게 떠도는 자료들에 대한 적절성 판단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태도를 지도해야 한다. 출처를 밝히는 윤리는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조금만 더 심화시킨다면 매체가 쓰기를 하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 특히 이 내용에서는 인터넷 매체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소통 방식을 나누어 다루고 있고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서 나름대로 최근의 전자 매체를 다루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매체의 변화에 따라 쓰기의 내용과 형식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통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각 매체들의 관계를 보여주기에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각 매체들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설명하려면 인터넷 매체에서의 쓰기 외에도 다른 매체에서의 쓰기와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매체에 따른 쓰기 능력을 기른다는 것에는 현재의 혼성 매체의 특성도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라 앞으로 보완 내지는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어교육 내용 중에서 매체의 속성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나 언어적 양상에 편중된 부분이 많으므로 환경으로서의 매체가 가지는 특성과 그에 따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인간의 생활과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어 교과서에서 언론 매체와 사회의 관계를 일부 다루고 있으나 미흡하며 매체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가 맺는 관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 매체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와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여 최근의 혼성 매체에 대한 이해도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다. 대체로 각 매체의 특성은 다루지만 매체 사이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다룬 내용은 없다.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근의 혼성 매체가 가지는 특성이 과거의 매체들을 어떻게 흡수 통합 하였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제는 인터넷 매체가 소통의 도구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판단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고 현재의 혼성 매체가 가지는 속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학습자들이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바른 태도를 가진 능동적인 주체로서 소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2. 2. 29. 투고되었으며, 2012. 3. 9. 심사가 시작되어 2012.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곽춘옥(2003), “문식성 학습과 평가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국어교육학연구』 제18집, 국어교육학회 pp.5-34.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김성벽(2004), “매체 생태학의 연구 경향과 의의에 대한 고찰”,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3권,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pp.218-243.
- 김성벽(2001), “환경으로서의 매체에 대한 연구—매체 생태학의 연구경향과 의의”, 『언론연구소』 제10회 정기세미나,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pp.87-124.
- 김혜숙 외(2010), 『국어교육의 통합성을 지향하는 매체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학교출판부.
- 박인기(2003), “생태학적 국어교육의 현실과 지향”,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2권, 국어교육학회, pp.1-36.
- 박인기(2009), “교과의 생태와 교과의 진화—교과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어교과의 진화 조건”, 『국어교육학연구』 제34권, 국어교육학회, pp.309-342.
-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제37권, 국어교육학회, pp.137-158.
- 윤여탁 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동후(1999), “기술중심적 매체론에 관한 연구—맥루한, 옹, 포스터만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권, 성곡언론문화재단, pp.6-46.
- 이동후(2004), “매체 생태학적 통찰론에 대한 시론”,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pp.103-115.
- 이동후(2009), “융합 미디어 환경, 트랜스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주체의 양가성”,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한국방송학회, pp.15-32.
- 이주아(2011), “매체 생태학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창조적 대화 기독교교육 ; 전자매체를 활용한 상호연결적 교육방안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천택(2001), “국어교육을 위한 매체와 매체언어 탐구”, 『세국어교육』 제61권, 한국국어교육학회, pp.79-104.
- 전국국어교사모임(2005), 『국어시간에 매체 읽기』, 나라말.
- Casey Man Kong Lum(2006), *The media ecology tradition*, Hampton Press, 이동후 역 (2008), 매체 생태학 사상, 한나래.
- Marshall McLuhan(1964), *Understanding Media*, 박정규 역(1997), 매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o]선복스

Postman. N(1979), *Teaching as a conserving activity*, New York : Delta.

〈초록〉

생태학의 관점에 따른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김성희

매체 생태학은 매체를 환경으로 보고 인간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이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산다는 생태학적 관점과 매체가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 하나라는 관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매체 생태학의 원리 중에서 매체언어교육에 필요한 것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체 환경을 가시적으로 인식하고 매체의 속성과 편향성 등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매체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매체들 사이의 관계와 현재의 혼성 매체에 대해 통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인터넷 매체의 소통 도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내용에서 윤리와 예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 능력의 신장과 윤리적인 태도의 강조는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다만 앞서 말한 생태적 관점에 따르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환경으로서의 매체가 가지는 특성과 그에 따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매체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제도가 맺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 추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여 최근의 혼성 매체에 대한 이해도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다.

【핵심어】 생태학, 매체언어 교육, 인터넷 매체언어, 미디어 생태학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the Contents of Internet Media Language
Education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Ecology

Kim, Seong-hee

Media Ecology is a science which sees media as an environment and studies the various effects of media on human beings. It includes the ecological viewpoint that human beings live while getting organically interacted with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the viewpoint that media is one of the environments which have tremendous effects on human beings.

Of the principles of media ecology, it is needed to redefine what is necessary to media language education. First, we should tangibly recognize media environments, and understand the attributes and bias of the media. Second, we should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edia and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nstitutions. Third, we should simultaneous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media and the current mixed media.

We have critically studied the contents of Internet media language according to such principles. Most of the contents, which deal mainly with the Internet media as a communication instrument, are focused on enhancing its communication ability. And they stress ethics and manners in many cases. Such an emphasis on the enhancement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ethical attitudes is indispensable to the contents of the Internet media language education. But if we see it from the ecological viewpoint we mentioned before, a lot of supplementation is needed.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which the media as an environment has and the

effects which the media has due to those characteristics on human beings should be added andsupplement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nstitutions should be added.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recent mixed media including the Internet should be added.

【Key words】 ecology, media language education, Internet media language, media ecology